# □ 임상연구 □

# Isoflurane 흡입마취 동안 아산화질소가 뇌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박관식 · 박종국\* · 문봉기 · 이숙영 · 김진수 · 노현주

## The Effect of Nitrous Oxide on Cerebral Entropy during Isoflurane Inhalational Anesthesia

Kwan Sik Park, M.D., Jong Cook Park, M.D.\*, Bong Ki Moon, M.D., Sook Young Lee, M.D., Jin Su Kim, M.D., and Hyun Ju N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Background:** The bispectral index has limitations in describing the exact depth of anesthesia during nitrous oxide inha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nitrous oxide on the cerebral entropy measured using an entropy module (M-ENTROPY Module  $S/5^{\odot}$ ,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oration, Helsinki, Finland) during the stable anesthetic period with isoflurane inhalation.

**Methods:** Sixty ASA 1 or 2 adult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hree groups. During the stable maintenance period after the skin incision, the baseline entropy values (response entropy, RE; state entropy, SE) were recorded at 2.5 minutes intervals over a 20 minute period on a single frontal channel at 0.9% end-tidal isoflurane. After this, medical air was used continuously (group C) or replaced with nitrous oxide at 40% (group L) or 60% (group H) with continuous hemodynamic and entropy values monitoring. Each of the variables was recorded and analyzed at 2.5 minutes intervals over a 20 minute period.

**Results:** Average values (mean  $\pm$  SD) of the RE and SE during experimental period were lower in group H (29.2  $\pm$  12.3 and 28.5  $\pm$  11.7, respectively) than group L (33.9  $\pm$  7.3 and 33.0  $\pm$  7.3, respectively) and the averaged values were lower in group L than in group C (46.6  $\pm$  14.8 and 45.5  $\pm$  14.2, respectively). The percent reduction was larger in group H (42.1  $\pm$  14.2 and 38.7  $\pm$  16.5, respectively) than in group L (25.3  $\pm$  15.1 and 24.4  $\pm$  14.9, respectively) and the percent reduction was larger in group L than in group C (P < 0.01).

Conclusions: Added nitrous oxide during the anesthetic maintenance period with isoflurane decreases the level of cerebral entropy.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543~9)

Key Words: entropy, isoflurane, nitrous oxide.

## 서 론

마취란 단순히 의식이나 기억의 소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 근이완 및 안정적인 자율신경계 반응과 같은 여러 임상목표의 종합된 결과이다. 마취 깊이는 의식의 수 준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수술 중 마취 깊이를 정확

논문접수일 : 2007년 1월 3일

책임저자: 박관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443-721

Tel: 031-219-5689, Fax: 031-219-5579

E-mail: sanhoman@ajou.ac.kr

본 논문은 2006년 일본에서 열린 2nd Japan-China-Korea Joint Symposium for Neuroanesthia에서 발표되었음.

. 석사학위 논문임. 히 측정하는 것은 수술 중 각성, 회상 및 기억의 형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방지하며 투여 약제의 용량을 적정화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빠른 각성을 유도하여 환자의 안정적 수술과 마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마취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왔다. 임상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은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움직임, 혈압과 맥박의 변화, 땀이나 눈물의 형성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뇌파나 신경계의 반응을 전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청각유발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 AEP), 이중분광지수(bispectral index, BIS) 및 뇌 엔트로피와 같은 정량적 측정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BIS는 뇌파분석에 위상각(phase coupling) 개념을 적용하여 마취 수준별로 상관성이 높은 지표들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 한 수치이다. 1) 열역학 분야에서 시스템의 불규칙성, 예측불가능성 및 복잡성 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엔트로피를 사용하였다. 뇌파는 카오스적인 성질이 있고 그 발생이 비선형적이므로 엔트로피에 기초한 분석이 마취 깊이를 반영한다는 개념에서 뇌 엔트로피가 개발되었다. 2) 뇌파의 엔트로피 처리 방식이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BIS와 AEP보다 더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다. 3) 또한 BIS보다 뇌 엔트로피가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구두명령에 대한 반응이나 의식 소실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보고도 있다. 4)

균형 전신마취의 보조제로서 자주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치과나 산과에서 진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대기압에서 아산화질소만으로는 마취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흡입마취제나 정맥마취제와같은 주마취제의 보조제로 사용되며 투여되는 주마취제의 농도를 줄여 약제의 독성과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70%의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면 피질 뇌파의 진폭은 감소시키지만 BIS값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한다. 5 또한단독 투여된 70% 이하의 아산화질소 농도에서 구두 명령에대해 반응 소실이 나타났지만 BIS는 변하지 않았다. 9 이러한 사실들은 BIS가 아산화질소에 의한 반응소실을 판단하기에 민감한 감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취 깊이에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호기말 농도의 isoflurane 흡입 마취 동안 각각 40%와 60% 호기말농도의 아산화질소가 뇌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산화질소 병용 흡입마취 동안 마취 깊이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엔트로피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계획하였다.

#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참여한 환자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다. 혈역학적 변화가 심하지 않는 3시간 이내의 정규수술로 수술 부위가 하복부이며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I—II에 속한 18—65세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수술을 받았거나 뇌질환 또는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항경련제나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약제의 남용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상기도 검사를 한 후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및 맥박 산소 계측기를 설치하여 환자의 활력증후를 감시하였다. 이 마를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감지전극(sensor electrode)의 1번을 이마 정중앙, 3번을 왼쪽 눈 외안각 옆에, 그리고 2번을 그 사이에 위치시켜 제조사에서 제공한 사용법에 따라 붙이고 엄지로 가볍게 눌러 피부와 잘 부착되도록 하였다. 엔트로피 모듈(M-ENTROPY Module S/5®,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oration, Finland)에 부착된 엔트로피 측정케이블을 감지기(sensor)에 연결하고 감지기 확인 버튼을 눌러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통과하면 측정을 시작하였다. 무작위로 20명씩 세 군으로 배정하였고 실험 기간 중 기화기와 유량계의 조정은 마취과 전문의가 하였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맥박수, 호기말 아산화질소 농도와 isoflurane 농도, 그리고 RE (response entropy, RE)와 SE (state entropy, SE)를 포함한 엔트로피와 같은 변수는 훈련된 마취과 간호사가 설정된 시점마다 모니터에 장치된 스냅샷 (snapshot)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기록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5분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환 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100% 산소로 전산소화를 수행하였 다. Thiopental sodium 5 mg/kg를 투여하여 구두 명령에 의 한 완전한 의식소실을 확인하고 succinylcholine 1.5 mg/kg를 투여하여 근이완을 유도한 후에 기관내삽관을 하였다. 성공 적인 삽관을 확인한 후 vecuronium 4 mg을 투여하여 근이 완을 유지하였고 이후 외과적 이완을 위해 사연속 자극의 네 번째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2 mg씩 추가 로 투여하며 근이완을 유지하였다. 피부절개가 시작될 때까 지 혈압을 관찰하며 0.9-1.2% 호기말 농도의 isoflurane을 투여하였다. 피부절개 후 isoflurane 호기말 농도를 0.9%로 조정하여 마취를 유지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가 기저치의 20%를 벗어나면 환자의 자료를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며 전체 신선가스유량이 5 L/min (산소: 의료용 공기 = 2 L/min: 3 L/min)가 되도록 하였고 환기기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35 mmHg 사이가 되도록 일회호흡량과 분당 호흡수를 설정하였다.

피부절개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 조작이외에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고 2.5분 간격으로 각 측정항목을 기록하여 20분간의 평균치를 기저치로 설정하였다. 기저치 측정이 끝난 후 대조군(control group, group C)은 의료용 공기로 지속 투여하였고, L군(low group, group L)은 의료용 공기 대신 아산화질소를 40% (산소:아산화 질소 = 3 L/min: 2 L/min)로, 그리고 H군(high group, group H)은 60% (산소:아산화질소 = 2 L/min: 3 L/min)로 투여하여실험기간 동안 모든 군에서 전체 유량이 분당 5리터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Isoflurane과 아산화질소의 뇌-폐포 평형을 확보하기 위해 호기말 아산화질소가 목표농도에 도달하거나 Eger와 Bahlman이<sup>7)</sup> 제시한 바와 같이 흡입농도와 호기말농도의 차이가 10% 이하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5분 간격으로 20분간 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목표농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돌발파억제비(burst suppression ratio, BSR)가 0% 이상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혈역학 변수의 변화가 기저치의 20% 이상 변하는 경우에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후 다시 산소: 아산화질소를 2 L/min: 3 L/min으로 마취를 유지하고 수술이 끝나면 모든 흡입마취제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산소만 분당 5리터 투여하였다. 근이완을 역전시킨 후 환자가 완전히 각성되면 기관내 튜브를 발관한후 회복실에서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일반병실로보냈다.

실험기간 동안의 모든 측정치는 RS232 케이블과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에 실시간 자동으로 저장하였고 이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S/5 Collect<sup>®</sup>,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oration, Finlan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연구 동안 C군과 L군에 각각 5명의 환자에서 SE를 측정하여 C군이 43.7  $\pm$  13.2, 그리고 L군이 37.2  $\pm$  7.5였다. 이것을 근거로  $\alpha$  = 0.05와  $\beta$  = 0.2로 가정할 때 단측 검정을 통해 엔트로피 측정치에 15단위 변화를 발견하기위한 표본수를 계산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SPSS 12.0으로 시행하였고 모든 결과는 평균 보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L군과 H군 사이의 평균치비교는 Student's t-test로 비교하였으며, 세 군 간의 독립성검정은 정규 분포의 연속형자료에 대해서는 one-way ANOVA

Table 1. Demographic and Baseline Data

Group	C (n = 20)	L (n = 20)	H (n = 20)
Sex (M/F)	7/13	12/8	11/9
Age (yr)	$40.3 ~\pm~ 9.8$	$49.6 \pm 14.4$	$47.7 \pm 16.9$
Height (cm)	$160.7 ~\pm~ 8.7$	$164.4 \pm 9.1$	$162.4 \pm 9.2$
Weight (kg)	$58.1 ~\pm~ 7.0$	$63.4 \pm 11.4$	$62.1 ~\pm~ 10.0$
ASA PS (I/II)	12/8	7/13	7/13
Baseline values			
RE	$45.5 \pm 15.7$	$46.8 \pm 12.0$	$50.4 ~\pm~ 15.4$
SE	$44.1 \pm 15.4$	$44.9 \pm 11.3$	$47.0 \pm 15.1$
Et-Iso (vol%)	$0.88 ~\pm~ 0.06$	$0.87 ~\pm~ 0.06$	$0.86 ~\pm~ 0.06$
SBP (mmHg)	$130.2 \; \pm \; 18.9$	$141.9 \pm 13.6$	$139.1 \pm 12.6$
DBP (mmHg)	$78.8 ~\pm~ 11.3$	$83.9 \pm 15.7$	$81.5 ~\pm~ 12.9$
PR (bpm)	$79.9 \pm 11.0$	$69.1 \pm 13.8$	$76.5 ~\pm~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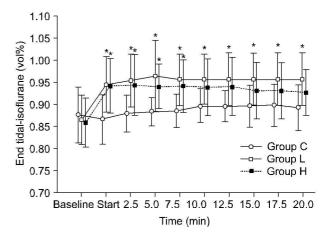
Values are mean ± SD. ASA PS: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Baseline values are average values for 20 minutes during stable anesthetic maintenance period after skin incision, RE: response entropy, SE: state entropy, Et-Iso: end-tidal isofluran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Group C: medical air, Group L: nitrous oxide 40%, Group H: nitrous oxide 60%.

검사와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하였고 비정규분포의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는 Kruskal-Wallis 검사를 하였다. 성별과 신체 등급과 같은 비연속형 자료는 카이제곱 검정과 Fisher's exact test를 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의 군 간 비교를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검사를 하였고 혈역학 변수들과 엔트로피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결 과

인구학적 자료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1). 60명 환자가 모두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실험기간 중 BSR이 나타나거나 술 후 신경학적 변화나 합병증의 발생은 없었다. RE와 혈압의 Spearman 상관계수는 수축기 혈압이 -0.06, 이완기 혈압이 -0.06이었다.

세 군에서 호기말 isoflurane 농도의 20분간 기저치 평균은 C, L 및 H군에서 각각 0.88 ± 0.06%, 0.87 ± 0.06% 및 0.86 ± 0.06%으로 세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실험기간 중 L 군과 H군의 평균 호기말 isoflurane 농도는 아산화질소 투여 전보다 L군은 10.6 ± 6.5%, H군은 9.1 ± 6.8% 상승하여 각각 0.95 ± 0.05% (L군), 0.93 ± 0.05% (H군)였다(Fig. 1,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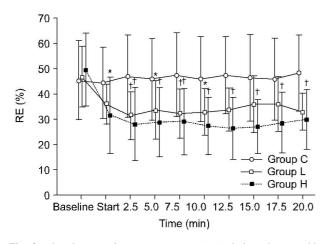


**Fig. 1.** The changes of end-tidal isoflurane concentration during nitrous oxide inhalation in the three groups. Values are mean  $\pm$  SD. Group C: medical air, Group L: nitrous oxide 40%, Group H: nitrous oxide 60%. Baseline: averaged baseline values for 20 minutes before nitrous oxide inhalation, Start: start point of record after reached at desired end-tidal nitrous oxid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 L and H.

Table 2. Average Values during Experimental Periods

Group	C (n = 20)	L (n = 20)	H (n = 20)
Et-N <sub>2</sub> O (%)	0	$37.8 ~\pm~ 0.9^{\dagger}$	57.5 ± 1.5 <sup>††</sup>
RE	$46.6 \pm 14.8$	$33.9 ~\pm~ 7.3^{\dagger}$	29.2 $\pm$ 12.3 $^{\dagger}$
SE	$45.5 \pm 14.2$	$33.0 ~\pm~ 7.3^{\dagger}$	$28.5 ~\pm~ 11.7^{\dagger}$
Et-Iso (vol%)	$0.89 ~\pm~ 0.03$	$1.00 ~\pm~ 0.05^{\dagger}$	$0.93 ~\pm~ 0.05^{\dagger}$
SBP (mmHg)	$128.4 ~\pm~ 10.4$	$126.6 \pm 11.5$	$123.8 \pm 10.7$
DBP (mmHg)	$76.6 \pm 11.2$	$75.5 \pm 15.3$	$71.5 ~\pm~ 12.8$
PR (bpm)	$76.9 ~\pm~ 11.0$	68.0 ± 15.3*	69.9 ± 11.4*

Values are mean  $\pm$  SD. Each values are average values during experimental period for 20 min. Et: end tidal, N2O: nitrous oxide, RE: response entropy, SE: state entropy, Iso: isoflurane, SBP & DBP: systolic &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dagger P < 0.01$  compared with group C,  $^\dagger P < 0.01$  compared with group L.



**Fig. 2.** The changes of response entropy (RE) during nitrous oxide inhalation in the three groups. Values are mean  $\pm$  SD. Group C: medical air, Group L: nitrous oxide 40%, Group H: nitrous oxide 60%. Baseline: averaged baseline values for 20 minutes before nitrous oxide inhalation, Start: recording start point after reached at desired end-tidal nitrous oxid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dagger P$  < 0.01 compared with group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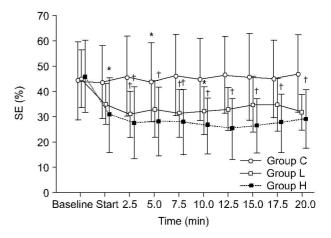
실험기간 동안 각 변수들의 평균치를 비교할 때 RE와 SE 값은  $C \overline{C}$ 보다  $L \overline{C}$ 과  $H \overline{C}$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 < 0.01)  $L \overline{C}$ 보다  $H \overline{C}$ 에서 더 낮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심박수가  $C \overline{C}$ 에 비해  $L \overline{C}$ 과  $H \overline{C}$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 < 0.01) 혈압에서 세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면 C군에 비해 L군과 H군에 서 모든 측정시간에서 기준치보다 유의하게 낮은 RE와 SE 값을 보였다(P < 0.01, Fig. 2, 3).

Table 3. Percent Reduction (%) from Baseline

Group	$ \begin{array}{c} C\\ (n = 20) \end{array} $	L (n = 20)	H (n = 20)
RE	$5.3 ~\pm~ 22.9$	25.3 ± 15.1*	42.1 ± 14.2* <sup>†</sup>
SE	$6.4 ~\pm~ 24.0$	$24.4 \pm 14.9*$	$38.7 \pm 16.5*^{\dagger}$
Et-Iso	$-1.8 \pm 5.9$	$-11.0 \pm 6.5*$	$-9.1 \pm 6.8*$
SBP	$0.6 ~\pm~ 6.1$	$11.6 ~\pm~ 8.1$	$11.2 ~\pm~ 11.0$
DBP	$3.7 ~\pm~ 7.1$	$12.5 ~\pm~ 9.2$	$13.8 ~\pm~ 11.0$
PR	$4.4 ~\pm~ 10.3$	$3.5 ~\pm~ 8.3$	$9.5~\pm~6.7$

Values are mean  $\pm$  SD. Each value is percent reduction of average values during experimental periods compared with baseline. RE: response entropy, SE: state entropy, Et: end tidal, Iso: isoflurane, SBP & DBP: systolic &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dagger}P$  < 0.05 compared with group L.



**Fig. 3.** The changes of state entropy (SE) during nitrous oxide inhalation in the three groups. Values are mean  $\pm$  SD. Group C: medical air, Group L: nitrous oxide 40%, Group H: nitrous oxide 60%. Base: averaged baseline values for 20 minutes before nitrous oxide inhalation, Start: recording start point after reached at desired end-tidal nitrous oxid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dagger}P < 0.01$  compared with group C.

각 군별로 기저치 평균으로부터의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아산화질소를 투여하는 동안 RE와 SE의 감소율이 L군과 H 군에서 유의하게 컸으며 L군(25.3  $\pm$  15.1, 24.4  $\pm$  14.9)보다는 H군(42.1  $\pm$  14.2, 38.7  $\pm$  16.5)에서 감소율이 더 컸다 (P < 0.01)(Table 3).

# 고 칠

이 연구는 하복부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isoflurane으로 흡입마취 동안 아산화질소가 뇌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기간 동안 평균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 및 기저치로부터의 감소율을 비교한 것이다. isoflurane 흡입마취 동안 추가된 아산화질소는 뇌 엔트로피를 감소시켰으며 40%로 투여한 군보다 60%로 투여한 군에서 감소율이 컸다.

이상적인 마취 깊이 측정 장비는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마취 깊이와 일치하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깊이의 마취, 각성과 회상의 소실을 보장해야 한다. BIS는 아산화질소, 아편양제제 및 케타민 같은 일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식의 수준과 다른수치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마취 깊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6,8-10)

마취유도나 유지 동안 사용된 아산화질소가 뇌 엔트로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외과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유도 동안 뇌 엔트로피 수치는 propofol를 사용한 경우에 감소한 반면,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1] Sevo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하는 동안 추가된 아산화질소의 엔트로피에 대한 효과는 동반된 흡입마취제의 농도에 따라 달랐다. [2] 즉, 흡입마취제가 낮은 농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반면에 높은 농도에서는 흡입마취제 양상이 우세하여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는 아산화질소 단독의 효과라 기보다는 이차가스 효과에 의해서 추가로 증가된 흡입마취제 농도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산화질소 투여동안 호기말 isoflurane 농도가 L군과 H군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여 아산화질소 농도만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또한 Ropcke 등은<sup>13)</sup> 마취 깊이 측정의 최종목표로 중앙주 파수(median power frequency, MPF)를 2.5 Hz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흡입마취제와 아산화질소의 최소폐포농도(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MAC)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의 등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Isoflurane 농도]는 isoflurane의 호기말 농도, [N<sub>2</sub>O 농도]는 아산화질소의 호기말 농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투여한 40% 및 60% 아산화질소 농도를 0.9% isoflurane 농도와 투여하면 MAC은 등식(1)에 의해서 각각 1.04 (L군) 및 1.16 (H군)이 되며 두 군 사이 아산화질소에 의한 MAC의 차이는 0.12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투여된 농도로계산하면 각각 1.07 (L군)과 1.17 (H군)으로 실제 두 군 간MAC 차이는 0.1이었으며 H군에서 isoflurane은 오히려 0.02더 낮았지만 아산화질소는 0.11더 높았다. 따라서 두 군간 엔트로피의 차이는 주로 아산화질소의 흡입 농도 차이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를 투여한 두 군 모두에서 투여기간 동안 느린 심박수를 보였으며 이는 아산화질소에 의한 교감신경의 긴장도 증가에 따른 압수용체 반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엔트로피값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혈역학적 변화에 의한 엔트로피의 차이는 배제할 수 있다.

높은 농도로 투여되는 isoflurane은 돌발파 억제를 초래한다. 반면에 0.8 MAC의 농도에서는 침해성 전기자극에 의해생긴 뇌파의 활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4] 따라서 isoflurane 투여 농도를 0.9%로 결정하였다. 이 농도는 투여된 아산화질소의 이차가스 효과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게 되는 isoflurane이돌발파억제를 초래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으며 또한 농도가너무 낮기 때문에 침해성 자극으로 발생하는 뇌파의 활성에의한 간섭을 막기에 적절한 농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50% 이하의 아산화질소는 치과나 여러 영역에서 주로 진통을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50%를 넘는 아산화질소 농도는 구역질과 구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각성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ampil 등은 15 50% 이하 농도의 아산화질소는 주로 진통효과와 약간의 인지능력장애와 관계가 있었으나 의식소실이 없었기 때문에 BIS의 감소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50% 이상의 농도에서는 인지능력 장애나 최면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호기말 농도 50%를 기준으로 아산화질소의 엔트로피에 대한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40%와 60%로나누어 아산화질소 투여농도를 결정하였다.

아산화질소의 투여가 BIS와는 달리 엔트로피를 감소시켰 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알고리즘의 차이 때문이다. BIS는 다양한 약제별로 수 천 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에게서 얻은 각종 뇌파관련 변수들 의 자료를 토대로 진정수준에 따라 각 변수들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진정 수준의 단계마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 수에 가중치를 주어 알고리즘에 반영한다. 따라서 낮은 마 취 심도에서는 주파수 기반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 외과적 마취 심도에서는 이중분광분석(bispectral analysis), 그리고 깊은 마취 심도에서는 시간 기반 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같이 마취 단계별로 각각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 한다.1) 반면에 엔트로피는 모든 진정수준에 동일한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BIS와 같은 얕은 진정 동안에 나타나는 높 은 베타 활성과 같은 특징이 없으며 마취약제 농도의 증가 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일정한 양상으로 감소한다. 16) 또한 뇌파에 대한 아산화질소의 특징이 BIS 자료에 부족하다면 알고리즘에 의해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아산화질소는 반복적인 침해성 자극에 대한 뇌파 반응을 억제시킨다. 이는 피질하 부위의 뇌간이나 척수부위

에서 아산화질소가 상행성 침해전달을 강력하게 막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피질 신경원의 활성을 저하시켜 전체 신경원 활동의 규칙성 및 일시적인 공간적 관계의 총합을 정량화해서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효과는 아산화질소가 enkephalin과 같은 물질의 분비를 초래하여내인성 아편양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18) 또한 대뇌피질활성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진  $\gamma$ -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를 약하게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N-methyl-D-aspartic acid (NMDA) 수용체에 작용하여 NMDA에 의해유발된 전류를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19,20)

균형마취 중 아산화질소에 아편양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약상호 상승작용에 바람직한 조합은 아니다. 기억상실과 진통 및 자율신경반사 억제와 같은 술 중 조건은 약간 증가시킬수 있으나 아산화질소가 아편양제제나 진정-최면제에 의해서이미 발생한 효과에 대해 상승적이지 않고 술 후 구역 및 구토와 같은 부작용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아편양제제는 마취 깊이와 일치하지 않는 BIS 수치를 보여<sup>9)</sup> 뇌 엔트로피 측정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되었다. 따라서 뇌파 효과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자 아편양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소아의 엔트로피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뇌 신경원 및 연결과정이 아직 덜 발달된 1세 이하의 영아에서 엔트로피기저치 및 흡입마취제에 대한 반응도가 낮았다.<sup>21)</sup> 본 연구결과 RE와 SE 감소율이 L군과 H군 모두에서 큰 표준편차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별 뇌 활성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생리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뇌파발생과 관련된 신경원의 절대수와 반응성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뇌 엔트로피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isoflurane 흡입마취 동안 아산화질소는 뇌 엔 트로피를 감소시켰다. 향후 다른 약제의 병용 효과, 연령대 별 차이 및 용량에 따른 반응 정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Rampil IJ: A primer for EEG signal processing in anesthesia. Anesthesiology 1998; 89: 980-1002.
- Viertio-Oja H, Maja V, Sarkela M, Talja P, Tenkanen N, Tolvanen-Laakso H, et al: Description of the Entropy algorithm as applied in the Datex-Ohmeda S/5 Entropy Module. Acta Anaesthesiol Scand 2004; 48: 154-61.
- Muncaster AR, Sleigh JW, Williams M: Changes in consciousness, conceptual memory, and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ical measures during recovery from sevoflurane- and remifenta-

- nil-based anesthesia. Anesth Analg 2003; 96: 720-5.
- Iannuzzi M, Iannuzzi E, Rossi F, Berrino L, Chiefari M: Relationship between Bispectral Index, electroencephalographic state entropy and effect-site EC50 for propofol at different clinical endpoints. Br J Anaesth 2005; 94: 492-5.
- Clapcich AJ, Emerson RG, Roye DP Jr, Xie H, Gallo EJ, Dowling KC, et al: The effects of propofol, small-dose isoflurane, and nitrous oxide on cortical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and bispectral index monitoring in adolescents undergoing spinal fusion. Anesth Analg 2004; 99: 1334-40.
- Barr G, Jakobsson JG, Owall A, Anderson RE: Nitrous oxide does not alter bispectral index: study with nitrous oxide as sole agent and as an adjunct to i.v. anaesthesia. Br J Anaesth 1999; 82: 827-30.
- Eger EI 2nd, Bahlman SH: Is the end-tidal anesthetic partial pressure an accurate measure of the arterial anesthetic partial pressure? Anesthesiology 1971; 35: 301-3.
- Hans P, Dewandre PY, Brichant JF, Bonhomme V: Comparative effects of ketamine on Bispectral Index and spectral entropy of the electroencephalogram under sevoflurane anaesthesia. Br J Anaesth 2005; 94: 336-40.
- Sebel PS, Lang E, Rampil IJ, White PF, Cork R, Jopling M, et al: A multicenter study of bispectral electroencephalogram analysis for monitoring anesthetic effect. Anesth Analg 1997; 84: 891-9.
- Puri GD: Paradoxical changes in bispectral index during nitrous oxide administration. Br J Anaesth 2001; 86: 141-2.
- Anderson RE, Jakobsson JG: Entropy of EEG during anaesthetic induction: a comparative study with propofol or nitrous oxide as sole agent. Br J Anaesth 2004; 92: 167-70.
- Soto RG, Smith RA, Zaccaria AL, Miguel RV: The effect of addition of nitrous oxide to a sevoflurane anesthetic on BIS, PSI, and entropy. J Clin Monit Comput 2006; 20: 145-50.
- 13. Ropcke H, Wirz S, Bouillon T, Bruhn J, Hoeft A: Pharmacodynamic interaction of nitrous oxide with sevoflurane, desflurane, isoflurane and enflurane in surgical patients: measurements by effects on EEG median power frequency. Eur J Anaesthesiol 2001; 18: 440-9.
- Barter L, Dominguez CL, Carstens E, Antognini JF: The effect of isoflurane and halothane on electroencephalographic activation elicited by repetitive noxious c-fiber stimulation. Neurosci Lett 2005; 382: 242-7.
- Rampil IJ, Kim JS, Lenhardt R, Negishi C, Sessler DI: Bispectral EEG index during nitrous oxide administration. Anesthesiology 1998; 89: 671-7.
- Ellerkmann RK, Liermann VM, Alves TM, Wenningmann I, Kreuer S, Wilhelm W, et al: Spectral entropy and bispectral index as measures of the electroencephalographic effects of sevoflurane. Anesthesiology 2004; 101: 1275-82.
- Leduc ML, Atherley R, Jinks SL, Antognini JF: Nitrous oxide depresses electroencephalographic responses to repetitive noxious stimulation in the rat. Br J Anaesth 2006; 96: 216-21.
- Finck AD, Samaniego E, Ngai SH: Nitrous oxide selectively releases Met5-enkephalin and Met5-enkephalin-Arg6-Phe7 into

- canine third ventricular cerebrospinal fluid. Anesth Analg 1995; 80: 664-70.
- 19. Yamakura T, Harris RA: Effects of gaseous anesthetics nitrous oxide and xenon on ligand-gated ion channels. Comparison with isoflurane and ethanol. Anesthesiology 2000; 93: 1095-101.
- 20. Mennerick S, Jevtovic-Todorovic V, Todorovic SM, Shen W,
- Olney JW, Zorumski CF: Effect of nitrous oxide on excitatory and inhibitory synaptic transmission in hippocampal cultures. J Neurosci 1998; 18: 9716-26.
- Davidson AJ, Huang GH, Rebmann CS, Ellery C: Performance of entropy and Bispectral Index as measures of anaesthesia effect in children of different ages. Br J Anaesth 2005; 95: 674-9.